

부산직할시 치과의사회 자체회관 준공

1967년12월 첫 회관건립위구성 이래 17년만인 1984년11월 회관 준
대지 약 100평에 총건평 378평, 지하1층 지상5층.



〈金盛洙회장의 개회사와 李永玉 치협회장의 축사〉



〈준공기념 테이프를 끊는 장면과 회관 정문〉

人 事

釜山市 齒科醫師會 會長 金 盛 洙

오늘 釜山市 齒科醫師會 會館준공식 및 第5回 綜合學術大會에 참석하여주신 관계 내빈 여러분, 演士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언제나의 勳勝을 기원합니다.

이 자리가 특히 뜻 깊은은 本會 40년 숙원사업이던 會館이 드디어 완공되어 그 집들이 行事로써 올해의 綜合學術大會를 가지게 되었다는데 있습니다. 齒科인 的 學術大會가 치과인의 집에서 치러지게 되는 효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內外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집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의 뜻있는 찬조와 정성에 머리를 숙이며, 공사를 맡아주신 3도개발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숙원이던 會館이 이 고장에 세워짐은 이제 次上의 목표인 4원복지사업과 보다 활성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하면 된다는 의지의 밝은 表出이며 후대에 남기는 遺産이 될것입니다. 이를 발판으로한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 성원이 있을 것을 믿는 바입니다.

가히 우리들의 자치일 수 있는 오늘 더불어 개최되는 第5回 綜合學術大會는 더욱 알찬 大會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들 學術大會를 重視하는 것은 醫療人의 一次의 요건인 보다 나은 爲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基本責務 때문이며, 爲 必要로 하는 대중은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診療人이기를 요망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大會가 날로 발전하는 學術에의 渴望을 해결하고 평소 의한 정보와의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소망하기로는 의 友愛가 좀더 돈독해지는 親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니다. 근자의 우리 젊은 후배들의 적극적인 學術大會 참가는 매우 무적이고 기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대회를 위하여 참가해주신 여러 演士님께 감사하며 항도 부산 科界 발전에 기여해 주시는 齒科機資材 關係諸社 여러분의 노고에 사 드립니다.

本大會의 盛況속의 결실을 위해 여러분의 격의없는 협조를 바라 이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재삼 감사드립니다.